

2024. 4. 1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청년정책반장

강선미

02-2133-6575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2쪽

청년참여팀장

이종림

02-2133-4312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은 서울시·서울청정넷 2024년 활동 시작

- 4.13.(토) 발대식 개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24년 본격 활동 돌입
- 활동신청서 신규 도입, 1.5대 1 경쟁률...인구통계 분포 고려 500명 선발
- 활동 범위... 신규 정책 제안 → 제안·모니터링·현장방문·봉사 등으로 확대
- 주요 활동 동기 '시정 기여'로 확인, 효능감 극대화 위해 교육·인센티브 약속

□ 서울시가 13일(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 서울청정넷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청년 참여 기구다.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들이 서울청정넷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청년 해외 원정대 등도 서울청정넷이 제안하여 올해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다.

□ 이날 발대식에서는 2024년 서울청정넷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청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서울청정넷 활동 성과와 올해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을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의 당사자로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내주기를 바란다고 새로 위촉된 서울청정넷 위원들을 격려했다.

-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24년 서울청정넷 위원으로 선발된 500명의 청년들은 연말까지 ① 기후·환경 ② 문화·예술 ③ 사회안전망 ④ 일자리·창업 ⑤ 주거 등 분야에서 정책 제안 및 정책 키움(모니터링)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 참여의 역사가 10년 이상 되면서 새로운 정책 제안만큼이나 기존 정책의 성숙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올해 활동 범위를 정책 제안뿐 아니라 정책 모니터링 등으로 확대하였다. 참여자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데이와 우수 정책 현장 방문, 사회 기여(봉사) 활동, 정책 발표회 등도 진행된다.
- 올해 서울청정넷 활동을 희망해 ‘활동신청서’를 제출한 청년은 총 730명이었으며,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도록 성별·연령·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려하여 500명을 선정하였다. ‘활동신청서’는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청년들에게 서울청정넷 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활동신청서를 살펴보니 청년들이 ‘청년이 당면한 문제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시정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청정넷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제안 교육,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고, 우수 활동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청년들이 가진 활동 목표가 실현되고, 활동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